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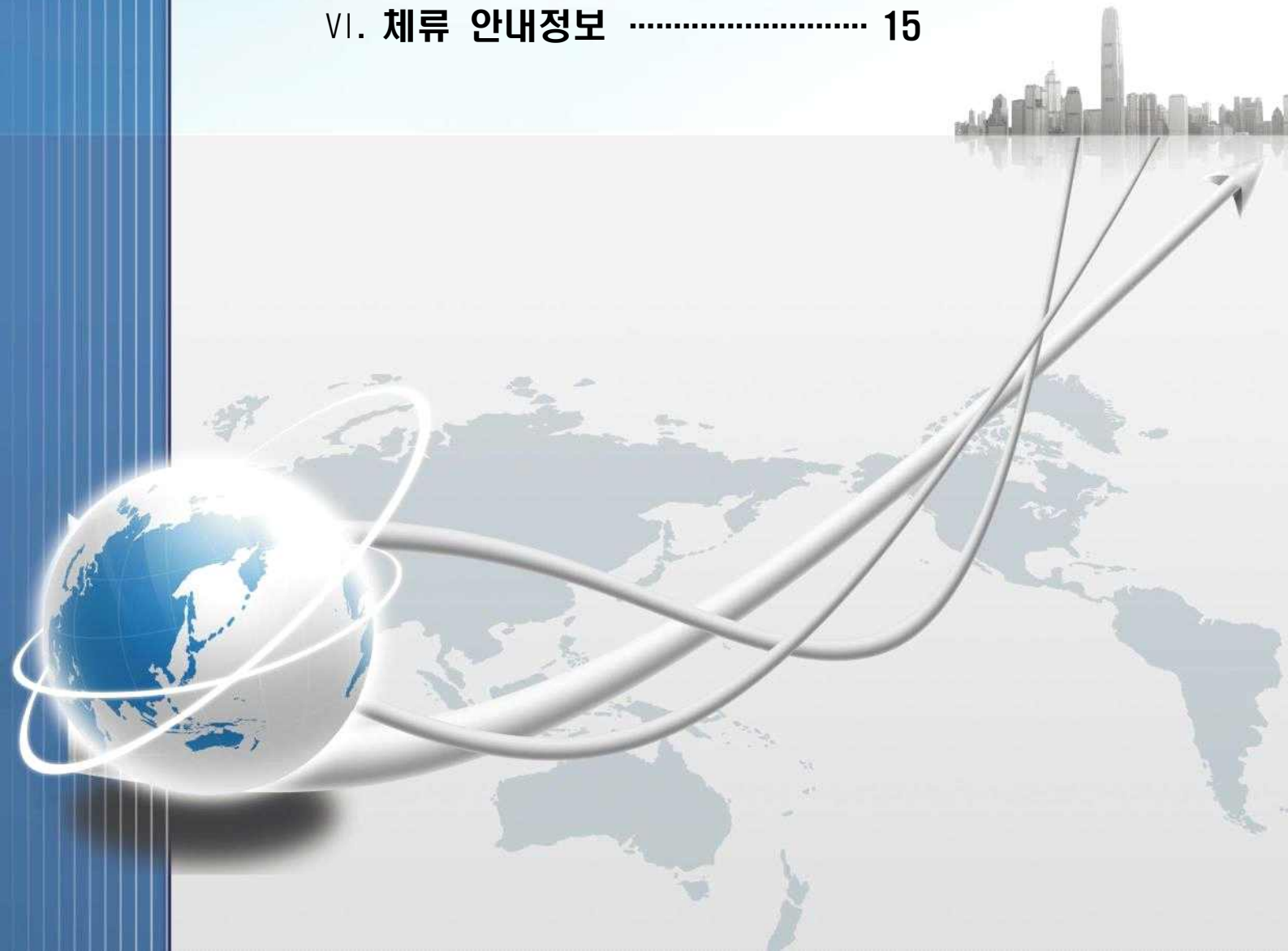


해외출장 가이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출장자료

【 목 차 】

I. 크로아티아 개황	01
II. 크로아티아 역사 개관	03
III. 시장특성 및 상관습	05
IV. 최근 경제 및 교역 동향	07
V. 크로아티아 투자환경	13
VI. 체류 안내정보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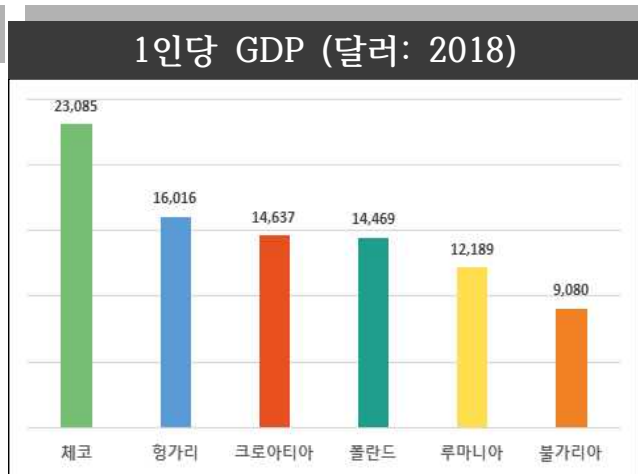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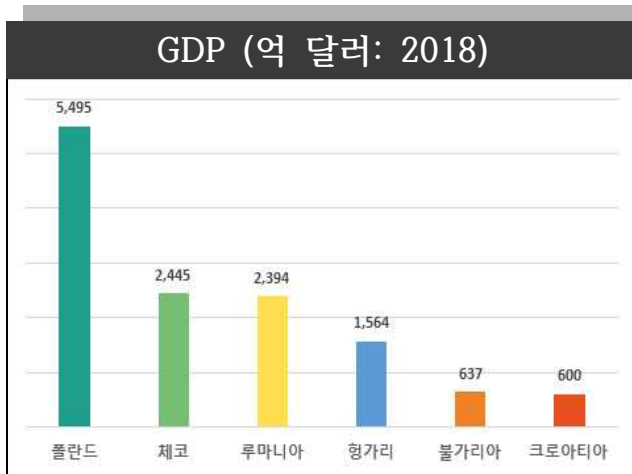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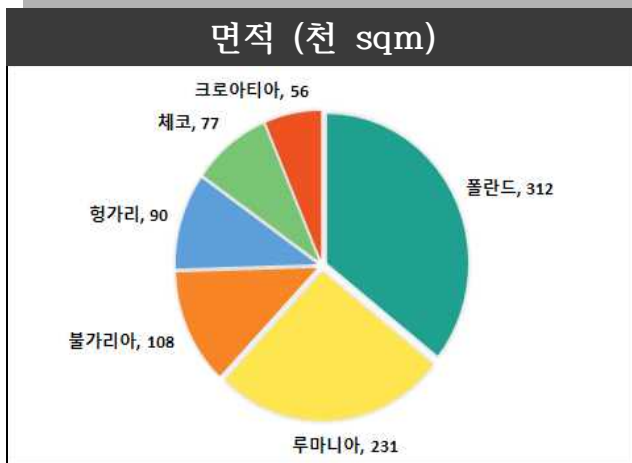


I. 크로아티아 개황

-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안에 인접한 관광 국가로 수도 자그레브 동쪽에 위치한 슬라보니아 평원 농업지대와 북부 및 중부의 산악지대, 그리고 아드리아 해안 지역으로 구분 가능
- 1991년에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을 선언한 후 세르비아계 분리주의자와의 내전을 겪었으며 95년 미국의 전쟁개입과 데이턴 협정으로 종전
- 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전환 및 독립 이후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1일 EU에 28번째 회원국으로 정식가입

- 국 명 : 크로아티아 공화국 (Republic of Croatia)
- 면 적 : 56,610 km² (한반도의 1/4, 남한의 1/2 규모)
- 기 후 : 지중해성(해안), 대륙성(내륙)
- 인 구 : 약 411만 명
- 수 도 : 자그레브(Zagreb)
- 정치형태: 의원내각제
 - 대통령 (국가수반) :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크로아티아 민주연합)
 - 수상 (정부수반) :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민주연합)
- 주요도시 : Zagreb(80만 명), Split (18만 명), Rijeka(13만 명)
- 민 족 : 남슬라브 민족에 속하는 크로아티아인(90.4%), 세르비아인(4.4%)
- 언 어 : 세르보-크로아티아어 (라틴문자 사용)
 - * 인근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에서 통용
 - * 슬로베니아어, 마케도니아어와는 같은 언어군이나 일상적 소통은 곤란
- 종 교 : 가톨릭(86.3%), 정교(4.4%), 이슬람교(1.5%)
- 건국(독립)일 : 1991.6.25 (구유고 연방으로부터 독립)
- 화폐단위 : Kuna (HRK) (1 US\$=6.62 Kuna, 1 EUR=7.46 Kuna)
 - * 1 kn= 170원 상당

<크로아티아 경제규모>



※ 자료원 : Eurostat, IMF

< 2017년 구 유고연방 국가 경제 규모 >

구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	합계 및 평균
인구(백만)	4.149	2.066	7.03	3.507	0.623	1.867	19.242
GDP(US\$ 십억)	55.20	48.46	41.43	18.17	4.77	7.23	175.26
1인당 GDP(US\$)	13,138	23,654	5,899	5,419	7,647	3,880	9,940
1인당 GDP (US\$ at PPP)	24,094	34,064	15,164	11,404	17,439	10,383	18,758
평균임금(gross, US\$)	1,219.2	2,230.9	612.3	761.2	864.2	482	1,02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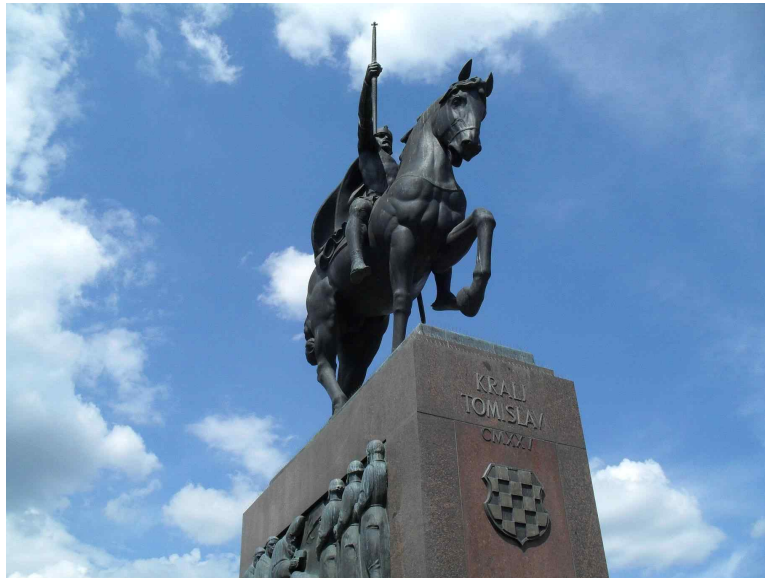
※ 자료원 : IMF, UNECE

II. 크로아티아 역사 개관

1. 정착 및 국가 형성 (4세기~10세기)

- 4세기부터 서로마 제국의 혼란을 계기로 슬라브족의 이주 및 정착 시작
 - 현재 보스니아를 경계로 서쪽은 서로마제국 영향 아래의 가톨릭 국가로, 동쪽 지역 기타 발칸국가들은 동로마제국의 영향으로 정교 국가로 발전함.
- 10세기 들어 최초의 크로아티아 왕국 건설
 - * 최초의 왕인 토미슬라브의 동상이 현재 자그레브 중앙역 광장에 세워져 있음.

<토미슬라브 동상>



※ 자료원 : Wikimedia Commons

2. 외세지배 하의 크로아티아 (12세기~20세기)

- 크로아티아는 당시 주변 강대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베네치아 등으로부터 침략과 지배를 겪음
- 16세기 오토만 제국의 유럽 침략으로 이슬람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어 발칸 국가는 가톨릭, 정교, 이슬람 등 3개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
 - 가톨릭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정교 :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 이슬람 : 보스니아, 알바니아, 코소보

- 1918년 1차 대전 직후 크로아티아 의회는 1918년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으로부터 분리선언
- 세르비아 중심의 통합국가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 (19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개칭)에 가담

3. 20세기 이후 : 유고슬라비아 시절과 독립 (20세기 이후)

-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에 티토가 이끄는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에 편입되어 공산 독재체제가 1980년 티토의 사망 시까지 지속
- 냉전 붕괴 시기인 1989년에는 민족주의 열풍이 확산하면서 급격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
- 1990년 봄 크로아티아의 자유선거 시행으로 투즈만의 크로아티아 민주연합 (HDZ)이 승리, 1991년에 독립 선언 이후 내전에 직면
- 1995년 데이턴(Dayton)협정으로 내전이 종식되고 오늘날의 평화체제 정착

<구유고슬라비아 연방 지도>



※ 자료원: The Cartographic of the United Nations (CSUN)



III. 시장특성 및 상관습

1. 시장특성

- **(소규모 시장)** 분리독립 후 구유고슬라비아가 보유하고 있던 규모의 경제 효과를 잃으면서 시장규모 축소
 - 높은 소매상 마진, 부가가치세(25%)로 인해 시급한 생필품이나 식품이외에는 인근 지역에서 여행 시 구매하는 성향도 강함.
 - 그러나 구유고부터 이어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에이전트가 수입시장을 주도하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시장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 **(유럽의 안마당)** 구유고연방 분리국가*와 밀접한 상권을 유지하면서 이태리,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와의 교역 활발
 - * 구유고 연방 국가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코소보 등 총 7개국
 - 대부분의 공산품은 소규모 수시오더 가능성, 신속한 딜리버리, A/S 및 마케팅 지원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인근 서유럽국가로부터 수입
 - 유럽에 현지법인, 물류창고나 지사가 있는 공급업체 선호
 - 한국산, 일본산 가전제품의 경우 대부분 유럽 내 공장, 중국, 동남아 등 간접 경로를 통해 수입
- **(소비시장)** 조선 등을 중심으로 일부 전략제조업 분야가 존재하나, 관광산업이 가장 활발하여 전반적으로는 제조시장보다는 소비시장의 특성이 강함.
 - 관광(GDP의 약 20%), 식품, 의약, 정유, 조선
 - * 외국 관광객 수 : 2017년 1,470만 명 방문(독일,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순)
- **(대형유통망 확대)** 식품은 토종 기업인 Konzum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비식료품 분야는 외국자본인 InterSpar, Metro, Billa, DM 등의 대형유통망이 확대되는 경향
 - 일반 소비재의 경우 대형유통망을 통한 진출 필요
- **(소비성향)** 과거 독립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실질소득 격감 등으로 구매력이 크게 위축되어 저가품 위주의 구매성향이 강함.
 - 하지만, 유명 브랜드 선택의식도 있어, 저가품과 고가품의 양극화 현상을 보임.



2. 상관습과 현지 민심

- 크로아티아인들은 문화적 자존심이 상당히 높아 크로아티아가 소련 주도 하의 동구권(Eastern Bloc), 발칸 국가(Balkan Countries)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하며 **중남부 유럽(Central Europe) 국가로 인식되는 것을 선호**
 - 상거래 혹은 협상 중 크로아티아를 발칸 국가, 동구권 국가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시장규모가 적어 소량 주문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구매습관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다품종 소량 주문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거래개시 필요
 - 물류창고를 설치하거나 혹은 동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바이어 모색 필요
- 크로아티아 비즈니스맨의 경우, 전반적으로 신실한 편이나 **업무처리/의사결정 속도가 느린 관계로 거래 성사를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
- 지급조건 관련, 일람불 신용장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신용을 쌓아 T/T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크로아티아인의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담 시 각종 스포츠 관련 화제를 시작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
 - 특히 축구에 대한 인기와 관심도가 높은 편이며, 이외에 핸드볼, 농구 등의 단체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
 - * 2018년 6월 현재 Luka Modric(레알 마드리드), Mario Mandzukic(유벤투스), Ivan Rakitic(바르셀로나) 등의 다수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활동 중

3. 한국에 대한 인지도

- 크로아티아 국민 대다수가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인지도와 국가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편
 - 현대, 기아 등 한국 자동차의 2018년 점유율은 8.2% 이며, 핸드폰은 삼성 Galaxy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TV 등 한국산 가전제품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산 품질 관련 높은 인지도 형성에 기여
 -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경험에 대한 선망의식이 있으며,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한국기업 투자유치 등에 관심

IV. 최근 경제 및 교역 동향

1. 개 요

□ 경제동향

-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 및 중동부 유럽의 물류 기지화를 추진 중
 - 91~95년까지의 독립전쟁에 따른 제조업 퇴보 및 국가분할로 인한 시장 상실로 경제 규모가 크게 위축됐으며, 비효율성·관료주의 등 과거 사회주의 시절의 비합리적 관행 잔존
 -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14년까지 지속하였으나, 2015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여, 2~3%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투자환경 개선 등 지속적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2013년 7월 EU 가입을 계기로 EU-펀드를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및 외국 인투자가 확대되어 새로운 경제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EU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에 지원될 EU 펀드 규모는 2014-2020년간 106억 유로에 이릅니다.

<크로아티아 실질 GDP 성장률>



※ 자료원: IMF



□ 2019년 경제전망(주 크로아티아 대사관 경제전망 참조)

- 2019년 크로아티아 경제는 △실업률 감소 △가계소비 증가 △ 관광산업 성장 등에 힘입어 2018년과 동일한 2.8%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크로아티아의 2019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EU 평균 이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근 동유럽 국가와 비교 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경제 성장에 안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 동유럽 '19년 예상성장률(%): 슬로바키아(4.1), 폴란드(3.5), 헝가리(3.3), 불가리아(3.1), 체코(3.0)
- 2019년 소비자물가(HICP 기준)는 유가회복에 따른 기저효과로 물가가 크게 상승했던 2018년(1.6%)에 비해 다소 낮아진 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소득세 과세기준액 조정(17,500kn→30,000kn), 부가세 13% 적용 품목 확대(일반 25%) 등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진작이 기대됨.
 - 이에 따라,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던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예상됨.
- 2019년 고용증가율은 안정적인 성장세와 노동시장 개선에 힘입어 2.0%의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크로아티아는 경제성장 및 관광산업의 높은 인력수요에 힘입어 2018년 실업률이 9.1%를 기록하였음.
 -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0% 미만대 실업률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도 7.6%로 고용시장이 더욱 안정될 전망
- 2019년 GDP대비 재정수지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확대로 0.4%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증가가 세금감면*으로 인한 지출을 상쇄하면서 흑자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공공부문 투자 증대로 인해 다소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 * 일부품목 부가세 인하(25%→ 13%), 부동산취득세 인하(4%→ 3%), 고용주부담 고용,산재보험 폐지,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등



2.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GDP(백만 유로)	43,456	44,630	46,664	49,013	51,496
GDP 성장률(%)	-0.1	2.4	3.5	2.9	2.6
1인당 GDP(유로)	10,254	10,616	11,180	11,882	12,594
외채(백만 유로)	46,416	45,384	41,668	40,247	38,836
외환보유고(백만 유로)	12,688	13,707	13,514	15,706	17,438
실업률(%, ILO)	17.3	16.2	13.1	11.2	8.4
물가상승률(%)	-0.2	-0.5	-1.1	1.1	1.5
외국인투자 (Net Incurrence of liabilities, 백만 유로)	2,299.7	7.9	372.4	528.5	1,001.6
평균임금(월/EUR)	965.87	996.73	1,025.70	1,072.06	1,138.91
환율(HRK/EUR)	7.6300	7.6350	7.5578	7.5136	7.4176

※ 자료원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및 통계청

3. 크로아티아 대외무역 동향

- 크로아티아의 교역량은 2008년까지 매년 17~18%씩 증가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2012년까지 감소하다가 2013년부터 조금씩 회복 중

<크로아티아 연도별 수출입 실적>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US\$백만)	12,377	12,670	13,836	12,930	13,813	16,074	17,401
수입(US\$백만)	20,724	22,016	22,810	20,579	21,905	24,837	28,203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2018년 크로아티아의 무역 규모는 456억 달러. 이중 수출의 60% 이상, 수입의 70% 이상이 EU 국가와 이뤄지고 있음.
 - 특히 독일(65억 달러)과 이탈리아(62억 달러)와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28%에 육박
- 크로아티아의 수출액은 2018년 174억 달러였으며 전년 대비 8.26% 증가하였음.
 - 주요 수출국은 이태리, 독일,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순
 - 주요 수출품목 : 광물성 연료(10.65%), 기계류(8.5%), 전기제품(8.24%), 의료용품(6.08%) 등



<주요 수출 품목>

(단위:US\$백만)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광물성연료, 에너지	1,819	1,925	1,435	1,297	1,709	1,853
보일러, 기계류	1,249	1,350	1,224	1,254	1,371	1,479
전기기기, TV, VTR	1,190	1,109	1,020	1,224	1,362	1,433
의료용품	520	520	573	927	1,276	1,057
목재류	713	840	756	792	866	972
자동차 및 부품	221	344	390	513	643	812
의류(편물제)	366	571	505	492	534	578
철강제품	294	431	416	428	520	573
알루미늄과 그 제품	348	.21	276	304	482	517
가구	446	541	518	550	524	497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크로아티아의 2018년도 총수입액은 2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하였음.
- 주요 수입국은 독일, 이태리, 슬로베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순
- 주요 수입품목 : 광물성연료(13.5%), 기계류(9.4%), 차량(8.1%), 전기제품(8.1%), 의료용품(4.6%) 등

<주요 수입 품목>

(단위:US\$백만)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광물성연료, 에너지	4,770	4,234	3,117	2,681	3,289	3,811
보일러, 기계류	2,062	2,052	1,895	2,154	2,429	2,643
자동차 및 부품	1,064	1,241	1,235	1,571	1,853	2,293
전기기기, TV, VTR	1,731	1,656	1,618	1,735	1,962	2,279
의료용품	802	853	839	1,267	1,134	1,307
플라스틱 및 그 제품	954	1,006	943	980	1,059	1,222
의류(편물제)	349	673	591	607	677	777
철강제품	587	569	528	569	651	728
철강	558	591	536	526	607	709
광학기기, 사진기, 의료	355	386	394	451	666	691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4. 한국-크로아티아 간 교역 동향

□ 우리나라의 대 크로아티아 수출입 현황

- 2018년 : 양국 간 교역량 2억 6천만 달러



<한국-크로아티아 간 수출입 추이>

(단위:US\$백만)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46	94	300	448	328	241
수입	17	15	10	13	16	19
무역수지	29	79	290	435	312	222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최근 교역 동향 및 특징

-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의 교역 규모는 2018년 기준 2.6억 달러
 - 2013년 최저치 기록 이후 크로아티아의 EU 가입과 같은 경기 호재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은 증가세로 반전했으나, 호황을 보였던 의약품 수출의 둔화, 2017년 선박대금 결제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교역량은 2년연속 감소 중.
 - 우리나라는 인근 유럽국가, 중국, 동남아 현지 공장을 통해 많은 간접수출 (약 5억 불)을 하고 있음.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디스트리뷰터 등
 - 우리나라의 대크로아티아 주요 수출 품목은 의약품, 승용차, 합성수지, 전기강판 등임.
 - 대표품목들의 경우 한국산 소형 SUV(코나, 스톨닉)의 인기 상승, 리예카항만 개발에 따른 중동부 합성수지 환적화물량 증가, 호텔·교통인프라 건설추진에 따른 철강자재 소요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였음.
- * 전자제품, 핸드폰, 자동차의 경우 현지 또는 제3국 생산에 따라 비중이 작게 나옴.

<한국의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S\$)

순 위	MTI	품목명	2017년		2018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1	2262	의약품	170,097,444	-57.2	166,571,319	-2.1
2	7411	승용차	11,657,209	173.6	15,796,197	35.5
3	2140	합성수지	10,031,234	-42.8	15,038,591	49.9
4	6135	전기강판	3,315,007	171.7	4,178,678	26.1
5	2289	기타정밀 화학원료	1,217,472	-2.4	3,933,057	223.1
6	6134	아연도강판	1,343,468	8,183.3	3,712,019	176.3
7	3109	기타플라스틱제품	91,664	11.5	2,802,342	2,957.2
8	4399	기타의식물	180,252	135.3	1,906,227	957.5
9	8147	의료용전자기기	1,575,710	94.7	1,649,886	4.7
10	3203	타이어	367,915	-41.2	1,540,773	318.8
11	7513	베어링	998,534	-22.9	1,451,581	45.4
12	4111	폴리에스테르 섬유	1,304,231	54.7	1,371,047	5.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크로아티아로부터의 수입은 원동기, 축전기, 축전지 등의 비중이 크고, 원동기, 기타비금속광물, 취미오락기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한국의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

순위	MTI	품목명	2017년		2018년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1	7111	원동기	31,328	-53.6	2,268,301	7,140.5
2	8333	축전기	1,438,325	11.2	1,563,222	8.7
3	8352	축전지	0	0.0	1,421,327	0.0
4	4411	편직제의류	992,253	-17.2	1,182,798	19.2
5	1290	기타비금속광물	81,619	459.1	1,107,348	1,256.7
6	8331	저항기	408,729	62.9	956,861	134.1
7	3103	필름류	0	-100.0	922,379	0.0
8	5142	취미오락기구	15,513	-95.0	782,605	4,944.8
9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371,371	-52.9	670,881	80.6
10	0156	식물성 한약재	469,714	71.9	597,745	27.3
11	5212	신발	729,162	5.4	537,342	-26.3
12	8291	기타가정용전자	668,879	199.8	520,773	-22.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향후 한·크 무역 전망 및 시사점

- 크로아티아 소비자들은 한국산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에 대하여 품질, 디자인 등에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향후 한국산 제품의 시장진출은 계속 확대될 여지가 많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유럽 내 물류기지 공동 사용을 통한 신속한 딜리버리 체계 구축, CE Mark 및 크로아티아 인증획득, A/S지원 등에서 유럽 공급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수출 유망분야 : 의약품원료, 화장품, 전자의료기기, 합성수지, 강판 등
- 또한 향후 EU 추가확대에 대비한 투자지역 다변화와 구유고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크로아티아나 구유고지역에 현지 공장설립이나 물류기지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더 나아가 크로아티아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정에 착수하고 있어, 우리 업계의 투자 진출 시 다양한 인센티브 수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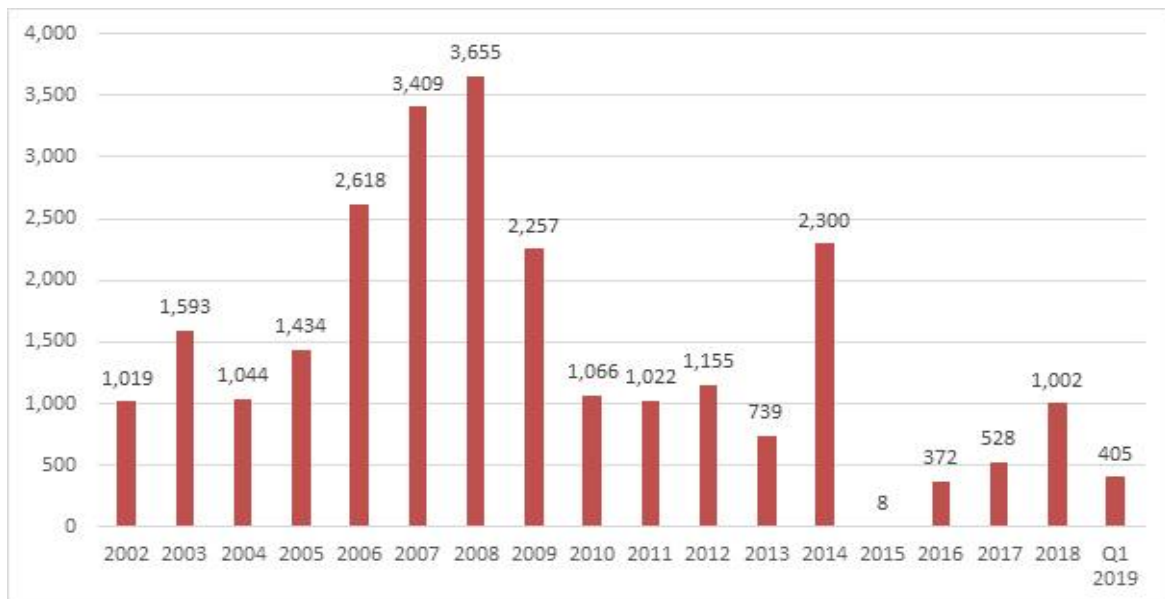
V. 크로아티아 투자환경

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1993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총 312억 유로
- 2009년 들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침체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EU가입 이후 회복 기미를 보이는 추세

<연도별 크로아티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백만 유로)



※ 자료원: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 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등 인근 EU 국가이고, 금융, 유통, 부동산, 통신, 석유화학 분야를 장악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투자는 미미한 상황이나, 최근 중국이 펠레사츠 다리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함과 함께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전면적인 투자확대를 예고하여 중국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주요 외국인 투자형태는 여타 동구권 국가와는 달리 그린필드 투자유치가 저조하지만,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2. 투자대상지로서의 장단점

- **(EU 및 동구시장 접근 용이)** 2013년 7월 EU에 가입하면서 EU 및 동구시장 접근이 용이하며 구유고연방국가(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뿐만 아니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 차량 및 철도로 쉽게 접근 가능
- **(양질의 인력 및 낮은 기업운영비)** 문맹률이 0.8%에 불과하고, 40세 이하 인구의 77%가 영어구사 가능하며,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 부과 (사무실임대료, 전기, 가스, 상수도 등)
- **(협소한 내수시장)** 인구 411만 명의 소국으로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주변국 및 유럽 인근 국가 진출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관료주의, 사법체계의 낙후성)** 과거 사회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 정부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낮은 법률변경, 허가절차 지연 등의 문제가 있음.
- **(높은 세금체계 및 복잡성)** 25%의 높은 부가세는 크로아티아 자국 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법인세는 18%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윤에 대한 과실송금 또는 주식배당 시 12%의 원천징수세를 추가로 부담하여 세금이 높은 수준

다. 한국의 대크로아티아 투자는 이제 시작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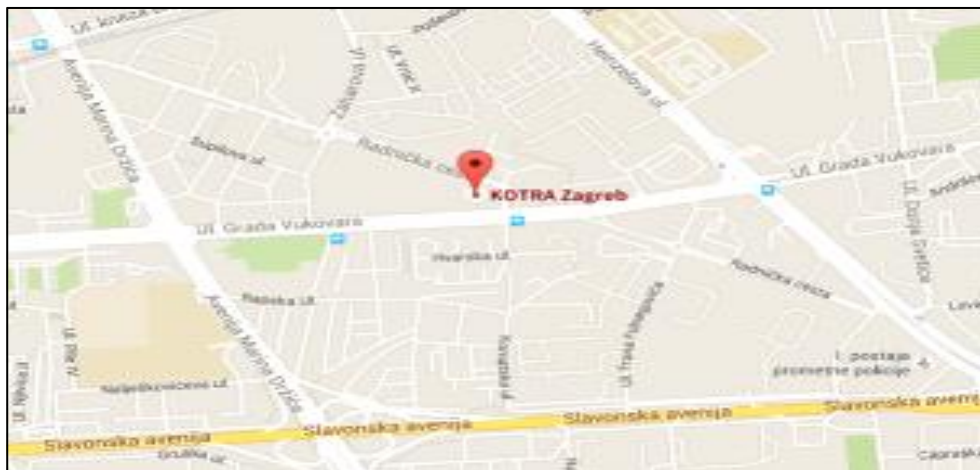
- 2018년 2월 기준 크로아티아에 대한 한국기업의 직접 투자는 삼성전자 판매 법인(구유고연방 관할)이 유일할 정도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
- 개인 차원에서 한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 및 요식업에 대한 투자가 최근 확대 추세에 있음.

VI. 체류 안내정보

1. 주요 연락처

대 상	연 락 처	비 고
자그레브 무역관	TEL : (385-1) 4815-101 FAX : (385-1) 4818-821 E-mail : kotrazag@kotra.or.kr	자그레브 내에서 전화 시에는 1을 누를 필요 없이 7자리 숫자만 사용
박은아 관장	Cell: (385-91) 530-5451	
이지택 과장	Cell: (385-91) 133-4555	
콜택시	UBER(핸드폰 어플 이용), 1212	
한국대사관	(385-1) 482-1282	박정현 부영사

※ 무역관 오시는 길



주소: Radnička cesta 52/VIII (그린골드 빌딩 R2 8층)

근무시간: 월-금요일 08:30-17:00

○ 위치

- 자그레브무역관은 최근 신규 오피스 단지가 밀집되고 있는 라드니치카 체스타 (Radnička cesta) 거리에 있으며, 자그레브공항에서 약 15km 거리에 있으며 택시, 또는 버스를 통해 방문 가능



○ 방법

- (택시 이용) UBER 어플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약 100쿠나(한화: 1만 7천 원)로 도착가능, 그린골드 빌딩(Green Gold)를 안내하면 어렵지 않게 찾아올 수 있음. 대부분의 택시 기사는 영어 소통 가능. UBER 이용이 어려울 시는 공항 청사 앞 택시를 200쿠나(한화: 3만 4천 원)에 이용가능.
- (버스 이용) 공항버스를 이용(30쿠나)하여 자그레브 시내 종점(Central Bus Terminal)에서 하차,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

※ 대사관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Ksaverska cesta 111/A-B, 10000 Zagreb, Croatia
- 전화: (385-1) 482-1282
- Email: croatia@mofa.go.kr
-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hr-ko/index.do>

2. 현지 날씨

- 한국의 사계절과 매우 유사하나 여름에 건조하고, 겨울에 습한 특징을 보임.
- 여름 평균 기온 : 최저 15℃, 최고 26℃
겨울 평균 기온 : 최저 -3℃, 최고 7℃

3. 간단한 현지회화

- 아침 인사 : Dobro Jutro 도브로 유뜨로
- 낮 인사 : Dobar Dan 도바르 단
- 저녁 인사 : Dobro Vecer 도브로 베체
- 고맙습니다 : Hvala 흐발라
- 네/아니요 : Da 다/ Ne 네
- 얼마입니까? : Koliko Kosta 콜리꼬 코슈타?
- Please, (Excuse me!) : Molim Vas 몰림 바스
- 좋습니다 : Dobro 도브로
- 미안합니다 : Oprostite 오쁘로스티테
- 헤어질 때 인사 : Dobidjenja 도비제냐



4. 체류시 유용한 정보

- 긴급상황 시 연락번호
 - 긴급상황신고 및 구조요청(통합): 112
 - 경찰: 192, 화재: 193, 도로교통사고: 1987
 - 응급의료 및 병원정보(구급차 요청): 194
- 젊은 층과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나 영어간판, 영어안내문 등은 없음.
 - 중장년층의 경우, 영어 구사가 안되는 경우가 많음.
- 현지 교민은 대사관, 코트라, 삼성법인, 유학생 등을 포함하여 약 180명 정도임.
- 한국식당과 한국식품점도 운영하고 있음

상호	주소	연락처	비고
크로케이(Cro.K)	Pod Zidom 4	(385-1) 4819-525	한식당
엄마식당(Omma)	Unska Ulica 2B	(385-99) 467 0701	한식당
한인마트(Korean Mart)	Radićeva ul. 14	-	한국식품점

- 치안은 매우 양호한 편이며 소매치기나 관광객 상대 범죄는 거의 없음.
- 환전
 - 은행 및 시내 환전소를 통해 가능하며, 은행과 환전소의 수수료 차이가 사실상 없음.
 - 현지 환전소 간판명은 'MJENJACNICA'임.
- 약국 : 녹색 십자가와 함께 Ljekarna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이 약국임.
- 대중교통
 - 트램(전차) :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30분 이하 1회 탑승요금은 4KN, 60분은 7KN, 90분은 10KN이며, 시간 내에는 환승도 가능함. 정류장 주변의 신문가판대(iNovine나 Tisak)에서 승차권 구매 가능함. 트램(전차)내 운전기사로부터 티켓구매도 가능하나 티켓 가격이 6KN/10KN/15KN로 더 비쌈.
 - 택시이용 : UBER* **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콜택시를 부르거나 (전화번호: 1212) 호텔앞이나 거리에서 빈 택시가 있으면 바로 탑승가능. 기본요금은 19KN (약 3,800원)이며 1km당 7KN (1,400원)씩 가산됨. 한국보다는 택시가격이 다소 비싼 편임.

* UBER app 다운로드 링크 : [Playstore\(안드로이드\)](#), [Appstore\(아이폰\)](#)

** 한국 신용카드 등록후 사용가능



- 식수 : 현지인들은 수돗물을 직접 마시기는 하나, 석회석이 다량 함유된 경수로서 생수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 국제전화사용
 - 한국에 전화 시 : 00-82(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
 - 수신자 부담전화 시 : 지역번호없이 901를 누르면 한국 측과 연결해 주는 교환원과 연결되며 국가명, 전화번호, 수신자(상대방) 이름을 알려 주면 수신자부담으로 연결해 줌.
- 한국과의 시차
 - GMT+1로 한국보다 8시간 늦음.
 - 3월 마지막 주 일요일~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동안은 서머타임을 실시하여, 7시간 늦음.
- 쇼핑
 - 시내 및 시 외곽에 백화점, 쇼핑몰, 기타상점이 있어 필요한 물품은 불편함 없이 구매 가능
 - 개점시간: 통상 월-금 10:00~20:00(토요일에는 오후 1시 또는 3시경에 폐점)

5. 관광 정보

- 크로아티아는 남동유럽의 대표적 관광지
 -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는 스플리트, 두브로브닉 등
 - 1979년 유네스코는 두브로브닉 올드타운, 스플리트의 디오클레티안 궁전, 호수공원으로 유명한 플리트비체 공원을 세계문화유산 리스트에 등재
- 자그레브 관광지로는 성 스테판 성당, 성 마르코 교회, 성 카테리네 교회 그리고 자그레브의 중심가인 트르그 바나 엘라취츠 광장이 있음.

< 주요 관광지 >



<성 스테판 성당(Kaptol)>

12세기경 창건된 이후 1242년에는 몽골리안의 침입이 있었고 1880년에는 지진이 발생하여 여러 번 수난을 당한 건물임. 108m의 쌍둥이 첨탑은 19세기 후반에 네오고딕 양식으로 올려졌고 사원의 분위기는 바로크 양식을 취하고 있음.



<성 마르코 교회>

시내의 중심에 있는 건물이며 교회의 지붕을 보면 화려한 모자이크로 왼쪽의 휘장은 크로아티아를 상징하고 오른쪽은 자그레브를 상징함.

크로아티아의 NATO 가입을 앞두고 2008년 5월, 크로아티아 최초로 미국대통령(부시)이 방문하여 연설한 장소로도 유명함.



<플리트비체>

194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약 3만 ha의 넓이의 호수공원. 총 16개의 호수가 층층 계단을 이루고 각 호수는 약 90개의 폭포로 연결되어 장관을 이룸.

또한, 석회침전물을 생성하여 1200 여종의 희귀식물들이 자생함. 7세기부터 사람이 거주하였으며, 세상에 알려진 시기는 15세기 경임.



< 주요 관광지 >



<두브로브닉>

“아드리아해의 진주”로 불리는 두브로브닉은 13세기경 건설된 중세시대 백색 도시. 당시 베네치아의 경쟁자로서 상업 도시로 발전했으며 현재 아드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서 UNESCO에 등재

시가지는 1940미터 길이의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 축성은 13세기에 디자인되어 17세기에 완성



<스플리트>

스플리트는 크로아티아의 제2도시(인구 약 20만명)로 중부 달마시아 지역의 경제, 행정 중심지임.

로마제국의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궁전을 건립했으며 궁전 사방에는 4개의 대문이 있고 16개의 타워로 축성되었는데 그 모양새가 로마군 캠프와 유사



www.kotra.or.kr